

전력수요를 이용한 GDP전망

• 최근 발전량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 3/4분기 5.7%에 이어 4/4분기 8.8% 성장함으로써 확연한 증가세는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년 12월의 강추위로 인해 난방전력이 급등하여 나타난 계절성 급등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계절성을 제거하고 발전량 추세를 통해 GDP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발전량은 2005년 3/4분기 정점 이후 금년 내내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망된 GDP도 안정적 추세 상승이 전망되는데, 특징적으로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최근의 전력수요 추세를 반영, 2006년 발전량은 7.0% 성장이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GDP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6년 발전량 전망

연간 7.0% 성장 전망(상반기 8.1%, 하반기 5.8%) 단위 : %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2006	9.1	7.1	8.1	7.2	4.6	5.8	7.0
2005	6.8	5.5	6.2	5.7	8.8	7.2	6.7

□ 2006년 GDP 전망

연간 4.9% 성장 전망(상반기 5.3%, 하반기 4.6%) 단위 : %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2006	5.2	5.3	5.3	4.6	4.5	4.6	4.9
2005	2.7	3.3	3.0	4.5	(4.9)	(4.7)	(3.9)

[문의 : 한국전력거래소 02)3456-6500]

산자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4,095억원 지원

- 참여정부 출범시 1,193억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4,000억원대로 -

■ 산업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4,0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는 '05년 3,242억원 대비 26.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244억원, 보급사업 1,375억원, 보급용자 1,213억원, 그리고 발전차액 263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 기술개발 부문은 상업용 연료전지, 태양전지소재 양산기술 개발, 해상풍력 개발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작년대비 32.3%증액된 1,2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490억원, 보급보조사업 28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75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30억원 등 작년대비 48.9%증액된 1,3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급용자 부문에는 작년대비 3.7% 증액된 1,213억원이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대비 26.4% 증액된 263억원이 지원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소요 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특회계 지원 예산은 1,765억원으로 작년 2,886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작년 355억원보다 대폭 증액되었다.

■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친환경 국산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03.12월)를 수립한바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 시 1,193억원이었던 예산규모를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3년간 연평균 52%)시켜 '06년에는 4,09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참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현황

□ '03~'06년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증 감	
					(B-A)	%
기술개발	374	732	940	1,244	304	32.3
보급사업	284	669	923	1,375	452	48.9
보급보조	21	97	233	280	47	20.1
태양광주택보급	-	63	160	490	330	206.3
지역에너지개발	263	369	400	475	75	18.8
신재생에너지단지	-	140	130	130	-	-
보급용자	478	500	1,170	1,213	43	3.7
발전차액지원	57	63	208	263	55	26.4
계	1,193	1,964	3,242	4,095	853	26.3

□ '06년도 신재생에너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05예산(A)	'06예산(B)	증 감		비고
			(B-A)	%	
에특회계(A)	288,670	176,560	△112,110	△38.8	전력 기금이관
기술개발	79,370	25,500	△53,870	△67.9	기금 이관
보급보조	23,300	27,960	4,660	20.0	전력분야 기금이관
태양광10만호보급	16,000	0	△16,000	△100.0	
신재생에너지단지	13,000	13,000	-	-	
보급용자	117,000	62,600	△54,400	△46.5	
지역에너지개발	40,000	47,500	7,500	18.8	
전력기반기금(B)	35,498*	232,972**	197,474	456.3	
기술개발	-	90,288	90,288	(순증)	
기반조성	-	8,700	8,700	(순증)	
태양광10만호보급	-	49,000	49,000	(순증)	
보급용자	-	58,700	58,700	(순증)	
발전차액지원	20,846	26,284	5,438	26.1	
합 계 (A+B)	324,168	409,532	85,364	26.3	

주) *종전에 전력연구개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R&D분야에 지원한 14,652백만원 포함

**에특회계로부터 전력기반기금으로 이관금액은 기금에서 지원해온 발전차액지원금을 제외한 2,067억원

[문의 :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4]

전기충격에도 안전 ... 비상시 노약자 쉽게 열수있게

- 문제점 지적 디지털도어록 안전성 대폭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길 정도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도어록'의 한국산업규격(KS)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고부(姑婦)가 사망한 원인으로 디지털도어록 개폐장치의 오동작이 의심된 바 있어 비상시 쉽게 열릴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의 장착을 요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또한 최근 특수한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전기충격기에 의해 디지털도어록이 쉽게 열릴 수 있음이 신문·방송에 보도됨에 따라 200만여 세대의 디지털도어록 사용 소비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도어록의 안전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생산업체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3만 볼트의 고전압에서는 열리지 않으면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내부에서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수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KS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현행 KS에 전기충격시험과 수동개폐장치의 의무화 및 이에 따른 토크시험을 추가하는 KS 개정(안)을 1월 17일에 확정하였으며, 올 4월경에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KS인증 디지털도어록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기기표준과 (02)509-7300]